



우리나라 선박안전 최우수국가 지위 획득

2004년도 아·태지역 57개국중 최고 성적

우리나라가 아·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에서 실시한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선박안전관리 최우수국가로 평가됐다고 해양수산부가 최근 밝혔다.

지난 3년간(2002-2004년) 우리나라 선박 2361척이 외국항만의 항만국통제 점검을 받았으나 이중 35척만이 출항정지돼 출항정지율이 1.48%에 불과하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. 이는 지역 평균 출항정지율인 7.21%와 비교할때 상당히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대상 57개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.

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선박의 대외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고 국적선사의 해외 영업에도 긍정

적인 효과가 기대된다.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해양부는 아·태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박 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아·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, 호주, 캐나다 등 아·태지역 18개 국가가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의 효과적인 운항 통제를 위한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1994년에 발족한 국제기구다.

부산청, 부산선원관련 단체 협의회 개최

부산지역 관련업계 현안 등 의견교환

부산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인수)에서는 6월2일 초량동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2005년도 2/4분기 부산 선원관련 단체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산지역 선원관련 단체의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.

부산 선원관련 단체협의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해양대학,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선원양성기관,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선원 권익보호단체, 선주단체인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 및 한국해운조합 부

산지부 등 선원 관련 14개 기관, 단체로 구성되어 매분기 1회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선원정책 집행의 주된 현장인 부산지역의 선원정책과 관련된 제반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.

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지트를 원양어선에 승선 중 상위 직책으로 직무가 변경된 해기사의 해외공관 확인서에 의한 승선공인 허용 등 현안 사항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.